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기업의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예비조사를 지원하거나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의 남미 진출 가속화 -----	2
□ 캐나다 정부, 몬트리올항 현대화 투자 발표 -----	3
□ UAE, 푸자이라(Fujairah)항 오일 저장탱크 증축 계획 발표 -----	4
□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터미널 확장을 위한 입찰 발표 -----	5
□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	6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의 남미 진출 가속화

- 유럽 및 북미 등 성숙된 시장에서의 컨테이너 화물 증가가 한계에 이룸에 따라 최근 주요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 Global Terminal Operators)들이 남미 시장으로 눈을 돌려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을 하고 있음
- 우선 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은 남미 전체 항만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는 2012년 1분기 브라질의 총 항만물동량은 전년 대비 7.1% 까지 성장하고, 2012년 전체적으로도 전년에 이어 기록적인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세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항만시설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실제 Santos(DPW, APM, Group TCB), Suape(ICTSI), Paranagua(Group TCB, CMA-CGM), Itapoa (Hamburg Sud), Itajai, Navagantes(Teconvi), Imbituba(Santos Brazil) 등의 항만을 중심으로 신규 개발 및 확장이 진행 중에 있음
- 페루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가 중 하나로서, 남미에서 5번째 경제규모(GDP 규모 약 3,000억달러)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에 5.1%의 GDP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World Bank)
 - DP World는 수도인 Lima에서 15km 떨어진 Callao에 연간 58만TEU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을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음
 - APM Teminal도 기존 터미널의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해 마련된 749백만달러 중 27백만 달러를 기 투자하고, 신속하게 항만시설 능력을 확대하고 있음. 현재 11m 수심을 12.5m로 확대 하고, Post-Panamax 크레인 2대도 인수할 예정임. 향후 총 12기의 Post-Panamax급 크레인과 36대의 RTGC(Rubber-Tyred Gantry Crane)을 설치할 계획에 있음
- 콜롬비아에서는 스페인의 항만 운영사인 Group TCB가 Buenaventura항에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Buenanventura항은 파나마 운하와 인접해있는 선사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2011년 전년 대비 20% 성장한 261천TEU를 처리하였으며, 시설이용률이 65%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콜롬비아 커피의 6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음
 - Gropu TCB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브라질의 Paranagua, 쿠바의 Havana, 멕시코의 Progreso에서도 터미널을 운영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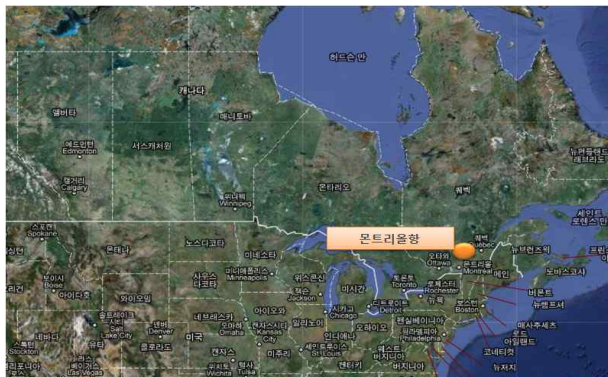
자료 : www.lloydslist.com, 2012.2.24; Brazil in Focus.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캐나다 정부, 몬트리올항 현대화 투자 발표

- 캐나다 교통·인프라사회부(Minister of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Honourable Denis Lebel 장관은 캐나다 동부지역에 위치한 북미 대륙의 Gateway를 구축하기 위해 몬트리올항(Port of Montreal) 현대화와 세인트 로렌스(St. Lawrence) 항로시스템 개발 투자 프로젝트 발표
 - 이에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최적화하고 세인트 로렌스 항로의 이용을 증가시켜 몬트리올항을 캐나다의 가장 큰 전략적인 무역항으로 육성시킬 계획
- 캐나다 정부는 몬트리올항 현대화 및 세인트 로렌스 항로시스템 개발 관련 2개 프로젝트에 대해 15.6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2014년 완공 예정
 -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및 활발한 경제성장을 위해 몬트리올항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욱 효율적인 항로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항 외에 소렐항(Port of Sorel), 베칸쿠항(Port of Becancour), 트로이스라이비에레스항(Port of Trois-Rivieres)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메리트 제공 및 캐나다의 무역을 촉진 한다는 계획임
 - 2014년 완공 후에는 현재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12.5%정도 증가하여 처리능력이 180만 TEU에 도달할 전망임
- 한편 캐나다 정부는 2008년 경제액션플랜(Economic Action Plan)도입 이후 세계경제침체 이전의 일자리 및 생산량을 모두 회복했으며 동 프로젝트 건설기간동안 110개의 일자리 및 완공 후 15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전망
 - 금번 투자는 향후 몬트리올 컨테이너항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특히 해양산업관련 일자리 창출 및 몬트리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 할 것으로 전망됨

< 몬트리올항 위치도 >



< 몬트리올항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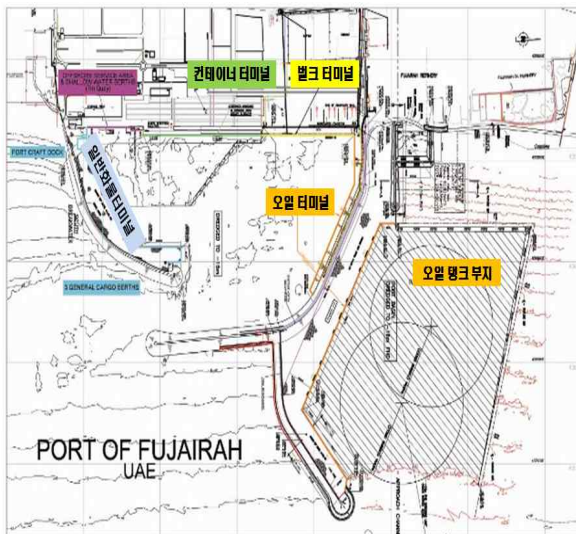
자료 : Dregingtoday, 2012. 3. 19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UAE, 푸자이라(Fujairah)항 오일 저장탱크 증축 계획 발표

-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Fujairah)항은 오일 저장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오일 탱크 규모의 2/3 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것이라 밝힘
 - 푸자이라항은 UAE의 중요 항구로써 발표한 증축 계획은 현재의 6백만m³의 탱크 규모에서 2014년에는 1,000만m³ 까지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동시에 발전 시설과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플랜트 건설을 추가로 계획 하고 있음
 - 푸자이라항은 연간 2,400 만톤의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벙커의 허브역할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로테르담항과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음

< 푸자이라(Fujairah)항 레이아웃 >



< 푸자이라(Fujairah)항 오일 탱크 신규 건설 부지 >



자료 : 푸자이라 항만, 2012.3

-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항까지 일일 1,500만 배럴의 오일을 수송하는 33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중이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수송 라인임
 - 아부다비 정부 소유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 는 35억 달러 규모로 푸자이라에 원유 정제공장 건설 계획을 추가적으로 언급함
 - 원유 정제공장은 201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나 건설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밝히지 않음

자료: www.hellenicshippingnews.com / www.fujairahport.ae, 2012.3.20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kmi.re.kr)

□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터미널 확장을 위한 입찰 발표

- 아데만(Gulf of Aden)의 주요항인 지부티항(Port of Djibouti)은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 터미널¹⁾ 확장을 위한 입찰을 발표
 - 프로젝트비 총 3억 달러 규모로 2015년에 완료할 것이며 현재 컨테이너 처리능력의 2배인 연간 300만TEU로 증대할 계획임
 - 현재 중국, 월드뱅크(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등이 동 프로젝트에 대해 협상 중임
- 지부티는 현재 작은 시장이지만 배후에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28.3%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컨테이너 화물 60만TEU를 처리
 - 지부티항은 에티오피아의 주요한 관문으로서 더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동부해안 횡단화물 무역 허브의 역할을 수행
-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지부티는 최근 에티오피아의 미네랄과 칼륨 수출을 위해 타주라(Tajourah) 내에 180백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포함하여 내년에 추가로 5개의 항만 시설을 건설할 계획
 - 아울러 지부티는 2014년 중순까지 도랄레에 정제 석유저장소를 증대시키고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 수단과 MOU를 체결하여 원유 수송을 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

〈 지부티항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물동량(TEU)	221,330	294,902	356,462	519,500	600,000	28.3

< 지부티항 위치도 >



< 도랄레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



자료 : Porttechnology, 2012. 3. 12

황현주 연구원 (☎ 02-2105-2897, julya7@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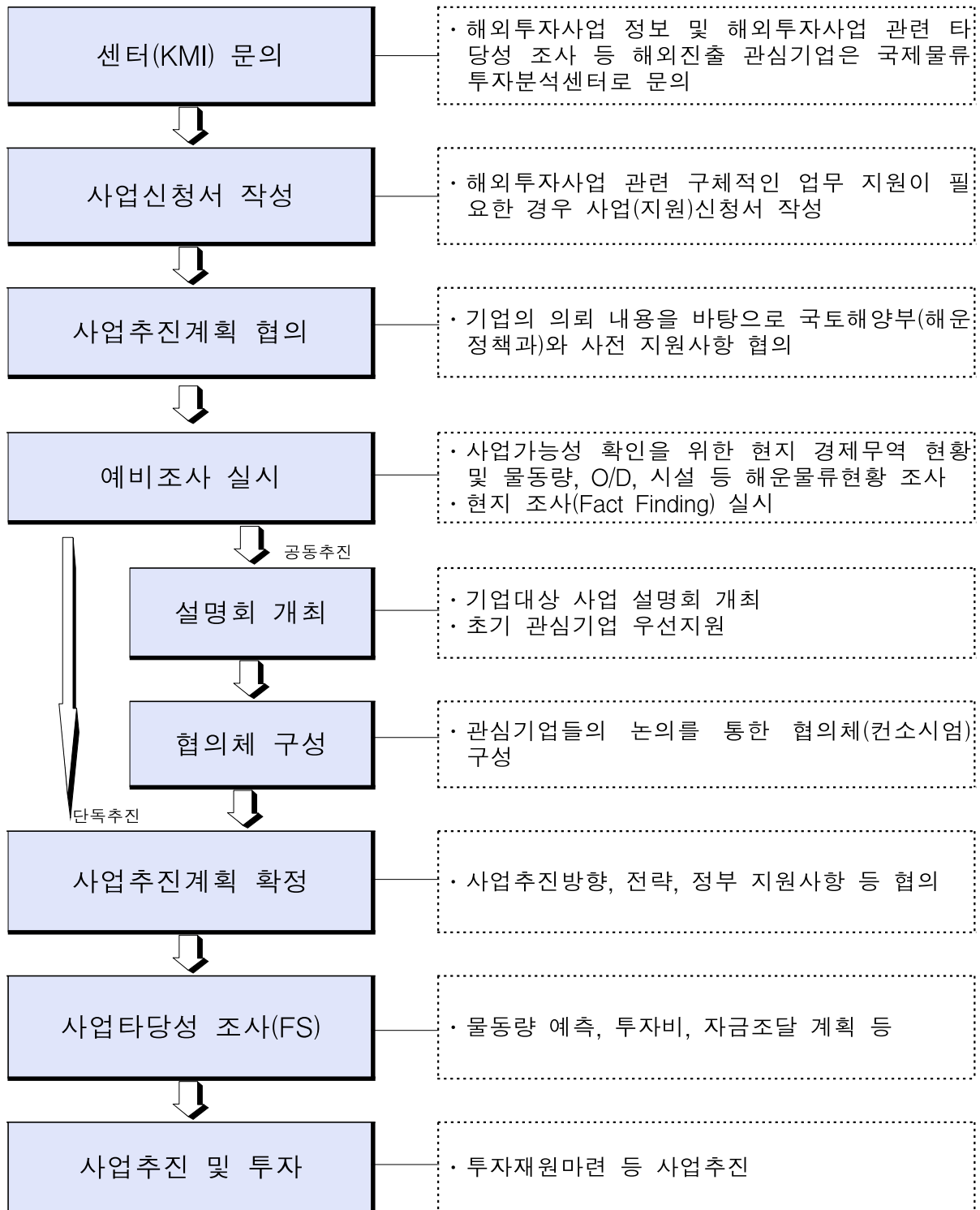
1) 2000년 지부티 정부와 DP World는 도랄레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및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였고 도랄레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분을 소유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

해운물류관련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2012년 해외 물류사업 타당성조사비용 지원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2.2.23~3.23
2.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주된 사무소가 해외소재시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용사, 은행,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3. 대상사업
 - 해운물류기업의 해외항만 및 물류시설 개발 투자·운영권 확보 관련사업
 - 자원개발과 연계한 운송 및 자원물류시설 건설·운영
 - 해운물류기업(해운선사, 3PL, 터미널운영사 등)의 인수·합병 및 해외 파트너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4.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오영록/최희동, 02-2110-6372/8558)
5. 기타 참고사항
 -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및 사업제안서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www.mltm.go.kr>)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8)로 문의하시기 바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